



한 페이지로 말해, 서진이 누구야?

작가 겸 '한페이지 단편소설' 사이트의 주인장 서진 다각도 인터뷰

네 명의 인터뷰어가 작가 한 명을 만났다. 주인공은 바로 소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로 올해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작가 서진. 이 젊은 작가의 이력이 특이하다. 전자공학 박사가 될 뻔했지만 중퇴하고, 캘리포니아를 유랑하던 어느 날 소설을 쓰리라 결심한다. 2004년부터 소설 창작에서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유통까지 독립적으로 해내는 대안출판 프로젝트 '한페이지 단편소설'(1pagestory.com)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신의 소설 두 권을 포함하여 아홉 권의 책을 자체 출판하기도 했다. 양파처럼 여러 껍질을 가진 그를 네 사람이 만나 살짝 벗겨 보았다. 작가로서의 서진, 대안출판 사이트 운영자로서의 서진, 한 인간으로서의 서진, 그리고 서진 자신이 보는 서진까지. 인터뷰 형식도, 방향도 제각각인, '한 페이지 짧은 인터뷰'.

작가 서진

서진, Over & Under

인터뷰어: 류예지

이제 막 처참한 몰골로 지하철 역사 안을 빠져나온 작가 한 명이 있다. 이름은 서진, 75년생 남자. 평소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간절한 꿈, 제12회 한겨레 문학상을 거머쥐고 당당히 지상으로 우뚝 걸어 나온 서진은 '오버'의 세계에 있는 독자에게 '언더의 세계를 구경하겠습니까'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초대장을 건네왔다.

그의 발칙한 초대장을 받고 기분이 찝찝해진 독자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거칠고 투박한 문체로 그려낸, 생소하고 이질적인 그러나 어딘가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뉴욕의 지하철이라는 공간,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김하진, 환상과 현실 사이에 애매하게 다리를 걸친 채 독자에게 겁 없이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작가.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소설가)'과 '당신(독자)'의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 '당신'이라는 호칭에 불쾌해 하지 말자. 그는 당신을 언더의 세계로 끌어당기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 나는 그의 소설을 거침없이 읽었다. 하이웨이를 달리는 고급 스포츠카라도 된 양.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요?

“왜, ‘그 남자는 지하철에서 깨어 나오지 못하는가’였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설정하는 게 힘들었죠. 1부는 차라리 쉬웠던 거 같아요. 늘 내가 쓰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장편이 되려면 동기가 있어야 하고 왜 그 사람이 갇히게 되었나, 그런 이야기가 줄줄 나와야 하는데... 2, 3부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까 여러 가능성과 조합을 두고 고심하다 가장 자연스러운 쪽으로 갔습니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를 읽는 내내 나는 가수면 상태였다. 일부러 지하철 2호선 안에서만 읽기를 시도한 것도 그 때문. 소설 속 뉴욕의 지하철과 지하철 2호선은 어쩐지 닮

았다는 생각에서였다. 모르긴 몰라도 컴컴한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있으면 주인공 김하진이 잠시 머물렀던 언더월드의 세계로 빠져들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나는 아직 삶의 관성대로—끼익끼익 쇠소리를 내며—돌아가는 회전목마 위의 직딩일 뿐이라는 현실을 자각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몽환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이다. 쇠, 절대로 구질구질하다 말하지 말라. 김하진이 언더월드에 갇힌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작가 서진 역시 이 작품을 통해 이전의 서진에서 이후의 서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애썼다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를 테면 그도, 나도, 김하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만이 희망이고 구원이 될 수 있으리라.

서진의 소설에서 오버와 언더의 세계는 교묘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아니 ‘오버’와 ‘언더’는 애초에 중요한 성질이 아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당신과 나는 김하진처럼 끊임없이 나를 찾기 위해 탈출하려 애썼다는 것, 사실 그 ‘도전’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소설가가 겁 없이 독자들을 향해 합당한 궤변을 늘어놓아야 하듯, 반복되는 삶일지언정 끊임 없이 세상을 향해 주먹질을 해야 하는 게 인간의 의무이지 않을까.

소설가가 됐어요. 축하해요.

“맞아요. 소설가, 나는 소설가가 됐어요. 장광설이 되겠지만 들어줘요. 소설가는 어느 면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연극, 무용, 기타 등등의 베이스가 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 할까, 좀 제대로 빈둥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예요. 이처럼 뻣센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나는 골방의 룸펜 스타일이 아니라, 빈둥거리려도 제대로 빈둥거리려 노력합니다. 가령… 제 고향이기도 한 부산 어디를 갈 기회가 생기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 유레나 맛집, 가야할 곳 등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쁘니까. 심지어 인터뷰어인 당신도 바쁘잖아요. (잠시 나는 뜨끔한다) 소설가 정도는 그런 잡학을 제대로 알아두면 삶의 윤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나는 참으로 바쁘다. 그와 메신저로 인터뷰를 하는 중간 중간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직딩이고, 다른 메신저 창을 켜놓고 남자친구와는 달콤한 수다도 떨어야 한다. 그는 도서관에서도, 스타벅스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제조맥주 전문점 허심청 브로이에서 맥주를 마시면서도 바깥세상의 리얼 라이프에 귀 기울이는 바쁜 소설가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나는 소설이라는 매체를 좀 더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소설처럼요. 그리고 블로그나, 태그, 플리커 같은 도구를 이용해 소설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진은 또 다른 탈출을 꿈꾸고 있다. 이제 막 지상으로 빠져 나온 서진. 그가 검고 어두운 언더그라운드의 세계를 빠져나오면서 몸 구석구석에 생겼던 상처들은 치유된 거 같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의 결말은 그래서, 좋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에… 그러니 좌절과 슬픔은 거두도록 하자.

문학은 엔터테인먼트여야 하며, 자신 역시 팝 라이터로서의 글쓰기를 표방한다는 서진

은 이미 소설가라는 이름을 과감히 자신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어쩐지 그 수식어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았다. 딱 맞는 수트처럼(하지만 실제 서진은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지금처럼, 과감히 세상 속에 우뚝 서서 희망을 그려내는 작가 서진이 되길 바란다.



글쓴이 류예지 서진과는 2004년 ‘한페이지 단편소설’의 편집장과 투고자로 만났다. 이전 더 난해해진, 작가와 독자라는 관계. 보통은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일년에 두어 번은 ‘한단설’ 오프모임에서 만나 소설과 한단설의 미래에 대해 최대한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한다. 2007년 12월 현재, 잡지사에서 맹렬 삼짱과 달콤 쌉싸름 연애중. 미지의 삶을 여행하며, 익숙한 것들을 멋지게 배반할 공리를 하고 있다.

대안출판 사이트 운영자 서진

창작 열정의 전달자

인터뷰어: 현수

‘한페이지 단편소설’(이하 한단설)은 작가 서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다. A4 한 페이지 분량(약 2000자)의 단편소설을 두고 받아 당선작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다. 2003년에 시작하여 그동안 100편의 당선작을 뽑을 때마다 작품집을 자체 제작하였고, 참여자들의 힘을 모아 테마별 작품집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6년 리뉴얼을 통해 대안출판 프로젝트로 거듭나게 되었다. 기존의 문단이나 상업적 출판 방식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내가 한단설 운영자인 서진과 만난 지는 시간으로 따지면 연수(年數)를 헤아릴 정도다. 그에 대해 서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문학에 있어 시장의 판도와와는 다른 방향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소설가를 꿈꾸지만 정식 등단의 실력을 갖추진 못한 상황에서 내 이야기를 써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나와 같은 맥주광을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연수를 헤아릴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 많은 맥주들이 한단설의 향방을 이야기하는 데 목넘김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기억이 나는 것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옳다고 생각해서였을까. 혹은 그저 상상으로라도 즐거울 법한 이야기들이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난 다시금 그를 만났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만난 주제에 인터뷰를 한다고 천연덕스럽게 ‘한단설은 왜 시작하셨고, 앞으로의 전망은?’ 운운하는 것은 체질에도 맞지 않

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맥주 500cc 두 잔을 앞에 두고 늘 하던 잡담을 떨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은 맥주를 마시기에도 꽤 좋은 날이었다. 그러나 서진의 표정은 오랜만의 만남답지 않게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다.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시원스럽다.

“뭐 고민 있어요?”

“응.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 사이트가 커졌으니까, 오�해도 생기지.”

“오후라... 뭐 애초에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지. 창작 사이트로 시작한 거긴 하고,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한단설을 전문적인 인터넷 문학사이트나 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적극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들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줄 수가 없는걸. 앞으로 회사의 형태로 하긴 힘들 테니 특별한 공정성이나 대단한 서비스를 갖출 수가 없는 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곤란해.”

“요즘 한단설이 대안출판이나 문학으로 알려지다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대안출판이 말은 거창해도, 너도 알다시피 그냥 소박한 거잖아. 소설 창작부터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유통까지 전체 출판 과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정도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책을 얼마나 찍었죠?”

“어디 보자... 한페이지 단편소설 작품집 4권, <1pageStory> 매거진은 올 9월에 처음 만들어서 계간으로 내니까 이제 한 권 냈고, 그 외에 테마 작품집 5권 만들고, e-book이야 수시로 만들고.”

“그래도 돈벌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서점 가판대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파니까. 아는 사람 상대한 장사에서 제작부수나 판매량 이런 거 기대 못 하지.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추구하잖아. 천 명의 후원자가 생기면 매달 한 권의 책자를 1,000권씩 만들어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학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그런 거지.”

“그때 가면 어떤 책을 만들지가 관건이겠죠?”

“물론.”

팝콘을 주섬주섬 주워 먹는 동안에 어느새 접시가 비었다. 그래서 종업원을 향해 팝콘을 요구했다. 맥주는 내가 좀더 빨리 마시는 편이라 맥주 한 잔을 추가로 시키고.

“빨리 서포터즈 천 명 모이라고 빌어야겠네요.”

“혼자 작업하는 거라고는 해도, 금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분명 중요한 의미니까. 지금까지 귀에 못 박히게 이야기해왔지만, 한단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창작 열정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거 말하는 거죠? <1pageStory> 잡지에 적었던 Creative Mind Delivery.”

“그렇지. 다들 먹고살기 바쁘다고 할지라도, 창작 열정만 있다면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말야. 자신만의 취향이나 세계를 창조해내는 자극을



주는 차원이지.”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적인 작가 양성소도 아니고 말이죠.”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 작가를 발굴하고 싶긴 했는데 사실 말이 좀 안 되잖아? 잘 쓰는 분들이야 어딜 가든지 잘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차라리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신선한 기획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

“꼭 작가들에게는 지원이 없을 것 같은 말인데요?”

“하하. 그럴 수야 없지. 작가별로 글을 모아 책을 만드는 기획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하던 일은 하고, 영어로 된 한페이지 단편소설 사이트도 할까 하는걸.”

“우와, 멋져요. 외국어 사이트라면 좀더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모토, 가늘고 길게 가자, 그거 아니겠어?”

“가늘고 길게 가자, 그거 좋죠.”

다시 두 사람의 잔이 맞닿았다. 시원스레 털어넣은 맥주 한 모금이 윗입술 끝에 거품을 맺는다. 그의 바람이 거창하지만 도리어 소박하게 들리는 건, 언제나 꿈을 꿀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단설의 작품들이 순수 문학을 지향하진 못하더라도 오늘날 독자 취향에는 오히려 더 가깝다는 말을 자신 있게 던지는 그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은 좋은 만남에의 믿음이라.

“그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면 회사 형태로 가야겠네. 회사 안 차린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한단설에 날 취직시켜 달라니까요. 한 달에 잡지 한 권씩 찍어낼 수 있다니까 그러시네요.”

“항상 말하지만, 통장에 삼천 쪼아 오든지 서포터즈 500명 끌고 오든지. 하하.”

건배. 맥주는 목넘김이 시원하고, 사람은 이야기가 시원한 법이다.



글쓴이 **현수** 계약직 국어교사로(그래서 조만간 백수생활 예정임) 영화, 사진, 요리, 인테리어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나 제대로 하는 건 딱히 없음. 한단설에 22번 당선작 <그녀 안의 나>로 당선되어, 이후 한단설에서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지냄.

인간 서진

진실된 글을 쓰고 싶은 소박한 30대

인터뷰어: 강선제

선제 | 서진이라는 필명은 어떻게 만든 거야? 송종길이라는 본명은 싫어?

서진 | 멋지게 보이려고. 본명이 싫진 않지만 너무 명랑하게 들려서. 진실된 글을 쓰자는 의미로 서진(書眞)이라고 붙였어. 아명도 두 자라서 웬지 두 자 이름이 갖고 싶었거든.

선제 | 공대생에서 소설가는 좀 거리가 있잖아. 박사과정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만둔 건데 아쉽지 않아?

서진 | 예전에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겨레 문학상 받은 심윤경 씨도 공대 출신이야. 공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아. 앞으로 할 일에 학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고.

선제 | 공대생이라서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서진 | 아마도 경제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되도록 적은 수의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아무래도, 비전공자라서 겁 없이 글쓰기에 덤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하.

선제 | 어떤 것에 반응하는데? 코드랄까 이런 거.

서진 | 서툴지만 말하고 싶은 바를 거침없이 말하는 것에 반응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 하지만, 정말 가슴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후려치는 사람은 별로 없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작품 자체에 장인 정신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

선제 | 그럼 싫어하는 건?

서진 | 뻔한 클리셰. 썬 살이 넘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조언. 왜 그들은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질 만한 조언을 해대는 것일까?

선제 | 어떤 삶을 지향해?

서진 | 독립적인 삶. 맘 놓고 소설만 쓰고 싶은 소박한 꿈이랄까.

선제 | 맘 놓고 소설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뭐데?

서진 | 요즘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어. 눈치 안 보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상금 덕에 얼마 동안은 돈 걱정 없이 글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시간은 빨리 흘러가네.

선제 | 그래서 요즘 초조해?

서진 | 약간 초조한데 좀 느긋해지기로 했어. 나는 한 번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시기거든. 이럴 때는 꾸준히 쓰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편이 좋아.

선제 |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는 동시대 30대에게 보내는 소설 같아. 30대를 겪어보니까 어때?

서진 | 내게 30대는 마침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20대에 그래야 하는데 미성숙이야.

선제 | 미성숙이 뭐지?

서진 | 우리나라 30대 남자들이 대체로 미성숙하지 않나 싶은데, 짜잡아 말해서 미안하지만 결혼도 주위나 사회의 기대대로 하고, 직장도 대충 들어가고, 옷, 음식, 영화도 취향이 별로 없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만의 세밀한 스타일, 그걸 빨리 캐치했으면 해. 인생은 짧으니까. ‘평범한 삶’이라는 거대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선제 | 금방 40대가 될 거 같진 않아?

서진 | 그 길이 험난할 것 같아. 계속 글을 쓰겠지만, 40대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장인의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어영부영하는 동안 금방 40살이 될 것 같아. 아, 썬 살이 넘어서 잔소리하는 영감이 되지 않았으면 해.

선제 | 소설을 뻔 일상에 대해 말해줘.

서진 | 일어나 밥 먹고 글 쓰고 작업실로 출근하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아.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이런 일상 속에서 나온다니까. 정말이야.



글쓴이 **강선제** 문화잡지 <보일라>(Voila)의 발행인 겸 디자이너. 2002년 첫 <보일라>를 낸 후, 현재 60호의 <보일라>를 발행했다. 작가 서진과 한 사무실을 쓰며 그의 악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보통이와 복길이, 녹두, 녹수, 비단, 봉봉이와 함께 부산 광안리 해변의 사무실 2층 다락방에 산다.

서진이 말하는 서진

진실이 순간에 있다면

인터뷰어: 자기 자신

인터뷰를 하다보면 똑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학 전공과 달리 문학을 한 이유, 한 페이지 단편소설과 문화잡지 <보일러> 편집장을 한 경력, 인디 작가에서 오버로 등단한 소감, 뉴욕에서의 생활 등등.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다 보니 가끔씩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나의 소설은 ‘진실이 순간에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기억을 토대로 고정된 답변을 하는 것이다. 남들이 안 물어봤지만 되도록이면 물어봐줬으면 하는 것으로 짧은 셀프인터뷰를 해본다. 물론 질문도, 대답도 지금 바로 생각나는 순간적인 것들이다.

<남들이 쓰기 힘든 히든카드를 갖고 있나?> 전공은 어쩔 수 없다. 박사과정을 그만둘 때까지 인공지능을 전공했다. 테크놀로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감성이 격돌할 때가 흥미롭다. 그런 소설은 한 번쯤 써보고 싶다.

<미국 진출 계획은 농담인가?> 농담을 진담으로 만드는 게 재밌지 않은가? 국내시장은 좁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는 뉴욕 이야기다. 당연히 뉴욕 서점 ‘반즈&노블’ 유니언 스퀘어 점에서 출판기념회와 낭독회를 하고 싶다.

<포스트모던한 형식 차용에 관심이 많나,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미디어 자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소설의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항상 모니터보다 책이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책이 영화보다, 인터넷보다, 게임보다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민한다.

<‘한페이지 단편소설’을 상업적으로 키울 생각이 없는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기업과 손잡으면 이용당할 뿐이다. 차라리 힘을 키울 때까지 제일 효율적이고 작은 규모로 일을 진행하는 게 낫다. 현재는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한다. 남들이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용은 다른 분들이 꾸미지만 혼자 기획해서 4년 동안 9권의 책을 만드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책의 퀄리티가 높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나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편없는 글도 써야 하고, 형편없는 책도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온다고 생각한다.

<자작출판을 한 것도 그런 이유인가?> 첫 책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채리>(2004)를 지금 다시 보면, 내가 이후 10년간 쓸 법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

서 놀란다. <하트호텔>(2005)은 단편소설이 어떻게 하나의 테마를 가진 연작소설로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한겨레 문학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2007)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펴냈을 것이다.

<떡고사는 데 지장 없나?> 운이 좋은 편이다. 돈이 툭툭 다 떨어질 때쯤 상을 탔다. 세상을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돌파구는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계속 한 곳만 파다보면 세상에서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된다. 그걸 또 10년 동안 하다보면 어느새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된다. 10년 정도 한 눈 팔지 않고 글을 쓰다보면 정통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설이라는 방대한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세밀한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일년에 서너 달 여행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한다. 그리고 보니 여유가 없을 때도 매년 석달 정도는 해외에 가 있었다. 역시, 돈보다는 마인드의 문제다.



글쓴이 서진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서 중퇴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디 문화잡지 <보일러>(Voila) 편집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안출판 프로젝트 ‘한페이지 단편소설’(1pagestory.com)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로 제12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다. 개인 홈페이지는 3nightsonly.com